



해외 개인 사이버보험시장 실태조사

박정희 선임연구원

영향

Swiss Re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디지털 생활화에 따른 위험보장을 위해 개인 사이버보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소비자가 개인 사이버보험으로 보장받고 싶은 위험은 사용자 로그인 정보의 불법적 접근, 신분도용, 데이터 손실 및 데이터 불법 유출 등임. 전체 응답자 가운데 56%가 개인 사이버보험에 가입의향이 있다고 응답해 사이버보안에 대한 인식은 높은 편임. Swiss Re는 현행 개인 사이버보험이 주로 본인의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에 국한되어 있으며, 제3자에 대한 보상까지 보장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 개인들의 생활은 점점 빠르게 디지털화 되고 있으며, 이에 사이버위험도 더욱 커지고 있음

- 개인 결제계좌를 보유한 전 세계 성인 4명 가운데 3명이 디지털 지급결제 방식과 온라인뱅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시간과 거리의 제약 없이 실시간 금융거래가 발생하고 있음
- 또한, 초고속 네트워크가 상용화되면서 스마트폰 하나로 외부에서 집안 온도나 가전 등을 원격 제어하는 기능 등 에너지관리 및 비용관리에 활용하는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디지털화가 확산 중임
- 그러나 생활이 디지털화 될수록 사이버위험 확대가 불가피함
 - 2017년 사이버공격을 받은 고객은 9억 7,800만 명, 그 피해규모는 약 1,720억 달러에 달했으며, 복구기간은 평균 23.6시간으로 나타남
 - 한편, 사이버공격에 가장 취약한 계층은 밀레니얼 세대로 나타났으며, 미국 10대 청소년 가운데 59%가 사이버폭력 등의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함

■ Swiss Re 설문조사¹⁾에 따르면, 최근 디지털 생활화에 따른 위험보장을 위해 개인 사이버보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가 개인 사이버보험으로 보장받고 싶은 위험은 사용자 로그인 정보의 불법적 접근(81%),

1) Swiss Re(2019. 2) “Personal cyber insurance: Protecting our digital lives”이며, 본 설문조사는 전 세계 다른 직업과 산업분야의 응답자 86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방식의 설문조사를 실시, 성별로는 여성이 35%, 남성이 65%로 남성이 많았으며, 연령대는 18~24세가 17%, 25~34세 32%, 35~44세 22%, 45~54세 20% 및 기타로 구성됨

신분도용(75%), 기술적인 문제로 인한 데이터 손실(69%), 개인데이터의 불법 유출(59%) 등임

■ 개인 사이버보험 가입의향에 있어서는 전체 응답자의 56%가 가입을 원한다고 응답해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한 인식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²⁾

- 성별로는 여성의 2/3 가량이 사이버보험을 가입할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남성은 1/2정도 가입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연령별 가입의향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상품설계 시 선호하는 상품유형으로는 가계보험이나 개인배상책임보험 등의 특약형태로 가입하기를 희망한다는 응답자가 63%로 단독형(Standalone) 37% 보다 높음³⁾
- 그 외 추가적으로 희망하는 서비스는 연중무휴의 기술 지원(61%)이나 사이버보안 경고(48%), 법적 조언(48%), 신원도용에 대한 모니터링(4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구매를 원치 않는 이유로는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피해 위험이 낮다는 것과 현재 보험시장에 판매 중인 개인 사이버보험에 대해 알지 못해서라고 응답함

■ 선호하는 가입채널로는 응답자의 77%가 온라인을 통해 직접 가입하겠다고 응답하였으며, 선호하는 판매회사로는 72%가 보험회사를 선택함

- 전통적인 판매채널인 보험대리점과 같은 대면방식으로 구입하겠다는 비중은 20%에 불과함
- 선호하는 사이버보험 판매회사로는 전통적인 보험회사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72%로 지배적이었으며, 3명 중 1명은 하드웨어 장치 판매자(33%), 온라인 플랫폼회사(32%) 또는 통신회사(32%)와 같은 다른 공급자를 통해 보험을 구입하는 것에도 관심이 있다고 응답함

■ Swiss Re는 현행 개인 사이버보험이 주로 본인의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에 국한되어 있으며, 제3자에 대한 보상까지 보장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 자신의 행위나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악의적인 전자메일을 실수로 전달하거나 다른 사람의 컴퓨터를 멀웨어로 감염시키는 경우 등 사이버 공격의 위험전가에 가담된 사람은 보상금을 지불해야 함
- 많은 사람들이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위협을 직접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기술지원이나 법적자문, 심리상담 등과 같은 실질적인 보장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kiqi**

2) 우리나라의 가계 사이버보험 가입의향 비율은 9.5%(2,224명 중 211명이 가입의향이 있다고 응답)로 인지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임; 임준 외(2018. 11),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이버보험 역할 제고 방안』, p. 103
 3) 우리나라 가계 사이버보험 설문조사에서 선호하는 상품유형으로는 단독형 47.9%, 특약형 52.1%임(동향분석실 2018)